

“KBO에 김민수만 4명…맨 앞에 서고 싶다”

내달 12일 전역…롯데 내야수로 컴백
3루수 윌슨·한동희와 선의의 경쟁 다짐
“내가 마지막 기수…구단 해체 아쉬워”

지난 2017년 2차 2라운드에 지명되어 롯데 자이언츠에 입단한 김민수가 경찰 야구단에서 8월 12일 전역을 앞두고 있다. 만 21세의 나이에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는 차기 롯데의 내야를 든든하게 지킬 유망주로 꼽힌다.

경찰야구단의 마지막 홈경기였던 6월 30일, 김민수는 4회말 두산의 정우석을 상대로 동점 투런 홈런을 때려냈다. 경찰야구단의 8-5 역전승에 큰 역할을 한 그는 경기 후 환하게 웃으며 인터뷰에 응했다.

승리와 홈런에 대한 축하 인사를 받은 그는 “벽제에서의 마지막 경기라서 꼭 이기고 싶었다. 승리에 기여하고 싶어 집중해서 타석에 들어섰다. 동점을 만든 것이 가장 값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전역이라는 의미는 개인적으로 기쁘지만, 마지막 기수인 우리가 전역을 하면 해체가 되니 마냥 마음이 편하지는 않다”고 해체되는 경찰야구단에 대한 아쉬움도 표했다.

“소속팀에 복귀할 때 잘 준비해서 나왔다”는 말을 듣고 싶다. 여기서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특타를 많이 했던 것 같다.” 지난 해 0.211의 타율과 4개의 홈런을 기



6월 30일 벽제에서의 마지막 경기에서 동점 투런 홈런을 기록한 김민수(오른쪽).

사진제공 | 정윤진

록한 데 이어 교류전으로 진행된 올해도 0.242의 타율과 7개의 홈런으로 다소 부진했다. 이 때문인지 그는 매일 특타(특별타격훈련)를 자진했다.

입단 첫 해 1군에 데뷔한 자신의 모습을 회상한 그는 “바보 같았다. 겉으로는 야구인데, 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민수는 군 생활 내내 롯데의 경기를 챙겨봤을 정도로 원 소속팀에 대한 애정

이 각별하다. 인천에서 나고 자란 그가 “제2의 고향은 부산”이라고 외칠 정도였다. 현재 롯데의 주전 3루수는 외국인 선수 제이콥 윌슨이다. 또 한동희가 3루수로 가장 많은 경기에 나섰다. 조심스럽게 내야 경쟁자 한동희에 대한 질문을 했다.

그는 “아직 피부에 와 닿지 않아서 그런지 신경은 안 쓰고 있다. 각자 노력하겠지만 서로를 의식하며 경쟁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조심스러운 답변을 했다.

올 시즌 KBO리그에는 네 명의 ‘김민수’가 있다. 롯데에도 경쟁대를 졸업한 김민수(1996년생)가 올해 입단했다. “입단 첫 번째로 떠오르는 선수가 되는 것이 프로선수로서 내 마음가짐이다. 어떤 면에서도 최고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하면 내가 가장 먼저 언급되지 않을까 싶다. 야구를 치열하게 즐겼고, 참 진지하게 임했다는 야구선수로 기억되고 싶다.”

청하영 명예기자(서울대 사회복지학과) poolmoon7@naver.com

“버저비터 골과 동시에 멘트 외칠때 짜릿”

연대 장내 아나운서 김채은의 농구사랑

연세대학교에서 대학농구가 열리면 가장 먼저 경기장에 나와 관객에게 인사를 전하고 경기를 알리는 사람이 있다. 학생 장내 아나운서 김채은(스포츠응용산업)씨다.

김채은 씨는 연세대 U리그 진행위원회, 체육위원회에 소속된 농구부 장내 아나운서다. 지난해에는 체육위원회에서 학교 마스코트인 독수리 탈을 쓰고 경기장 분위기를 띄우는 일을 했다. “그때 농구를 많이 배웠다. 심판 심호나 규칙, 파울 종류, 기록지 등을 1년 동안 어깨너머로 배웠다. 경합이 쌓이니까 심판이 불기도 전에 파울이 보였다.”

2학년이 되자 장내 아나운서 자리를 제안 받았다.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니 막막했다. 아나운서에 대한 경험이나 정보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2011년에 장내 아나운서를 했던 선배를 찾아가 조언을 얻었다.

개막전인 3월 18일 고려대와의 경기에는 전문 아나운서가 초빙돼 3월 21일 한양대와 의 경기가 김채은 씨의 데뷔전이 됐다. “전문가가 하는 걸 보고 잘 익혀두려고 했다. 그런데도 엄청 떨렸다.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온몸에 힘이 들어간 채로 했더니 끝나고 나서 녹초가 됐다.”

가장 뿌듯했을 때를 묻는 질문에는 눈이 반짝였다. “경기가 끝남과 동시에 골이 들어갔을 때 먼저 확인하고 멘트를 할 때가 있다. 골과 동시에 멘트, 관객의 환호가 합쳐질 때가 정말 짜릿하다.”

물론 힘든 일도 많았다. 경기 내내 코트에서 눈을 떼지 않아도 실수가 생겼다. “카운트 보는 게 가장 어렵다. 사실 이것 때문에 학생 장내 아나운서의 멘트가 줄어들기도



연세대학교 장내 아나운서 김채은(왼쪽) 씨.

사진제공 | 청춘스포츠

했다. 우리가 실수하면 기록자 분들이 헛갈려 한다. 앞으로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다.”

김채은 씨의 꿈은 스포츠 아나운서다. 지금 활동을 꿈에 한발 더 다가가는 기회로 삼고 있다. 학생들도 전문 아나운서 못지않게

잘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김채은 씨는, 남은 후반기에도 관객에게 농구의 재미를 더해주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신민주 명예기자(부산외대 영상콘텐츠융합학과) dlswn943@naver.com

청춘스포츠

13

2019년 7월 10일 수요일

스포츠동아

8월 피겨그랑프리 시리즈 시작 ‘쿼드 점프’ 3인방을 주목하라

8월 1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스케이트 아메리카를 첫 대회로 2019-20시즌 피겨 그랑프리 시리즈가 시작된다. 특히 남자 선수들이 이행했던 기술인 4회전 ‘쿼드 점프’를 성공시킨 ‘쿼드 3인방’의 출전으로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카자흐스탄의 엘리자베타 트루신바에바는 ‘쿼드 3인방’ 중 유일하게 시니어 대회에서 4회전 점프를 성공한 선수다. 2019 사이타마 세계선수권에서 4회전 ‘쿼드 살코’를 성공적으로 해내며 세계의 집중을 받았다. 2019 4대륙선수권 프리에서 차지에는 실패했으나, 여자 시니어 최초로 ‘쿼드 점프’의 회전 수를 인정받았다.

러시아의 안나 셰르바코바는 2018-19시즌 주니어 세계선수권 은메달리스트다. 4회전 점프 성공률이 높기로 유명하기도 하다. 시니어 데뷔 시즌이지만 피겨 강대국인 러시아 내셔널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해 자격을 입증했다. 하지만 회전 수 부족 판정을 몇 차례 받으며 완성도에서는 아쉬움을 남겼다.

‘쿼드 3인방’ 중 마지막 선수인 알렉산드라 트루소바(러시아)는 2018-19 주니어 세계선수권 금메달리스트다. 지난 시즌 프리에서 4회전 ‘럿츠’, ‘살코’, ‘토름’을 모두 성공시키며 가장 다양한 4회전 점프를 구사했다. 쿼드 럿츠에 3회전 연결 점프마저 성공해 주니어 그랑프리 시즌에서 두 차례 연속으로 세계 신기록을 경신했다.

오소미 명예기자(국민대 스포츠산업레저학과) os9125@naver.com



교육·퍼즐

에듀윌

블라인드 채용 대비 TIP 공개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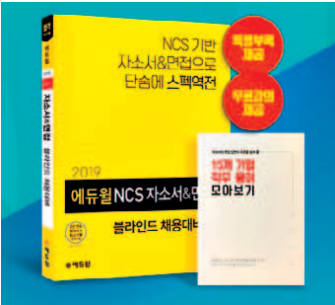
취업난 호기롭게 뚫는‘스펙 역전’ 비법은?

올해 1월 한 취업포털에서 대학 졸업 예정자 1112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 졸업 예정자 10명 중 졸업 전 정규직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설문에 의하면 ‘정규직에 취업했다’는 응답자는 전체 의견의 11%다. ‘인턴 등 비정규직으로 취업했다’고 밝힌 답변도 10%에 그치는 등 나머지 79%는 ‘아직 취업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내놨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층(15~29세)이 첫 취업에 걸리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10.7개월로 밝혀졌다. 이는 재작년 대비 0.1개월 늘어난 수치다.

이같이 취업 구직자들은 전례 없는 취업난을 극복하고자 취업 사교육의 문을 두드리기도 한다. 청년 구직자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취업 사교육은 ‘자격증 준비’가 37%로 가장 많았으며, 여학시험 19%, 영어회화 10%, 인적성 및 직업훈련 8% 등의 순이다.



이에 에듀윌은 취업 준비생들이 NCS 기본 자기소개서와 면접 준비로 스펙 역전이 가능한 ‘2019 에듀윌 NCS 자소서&면접 블라인드 채용 대비’ 교재를 출간했다.

해당 교재에는 15개 핵심 공기업 기술 항목의 59개 합격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한 작성 노하우가 모두 담겼다. 경험·상황·PT·토론면접 등 다양한 면접 전략과 함께 실전에서 활용 가능한 예상 질문까지 담았다.

특히 최근에는 ‘블라인드 채용’등 직무 중심의 자기소개서와 면접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면서, 이들 전형을 대비할 만한 별도의 학습 장치도 마련되고 있다.

■ 스도쿠문제

	9	1				2	
4	8		5		2	3	9
				7			4
	4			5			
8		5	7		6	4	3
				4			5
3				8			
6	7		2		3		4
	2					3	6

4			2		5		6
			1		8		
		5		6		8	
5	3			8			2
		9	5		6	3	
1	8			7			6
		3		1		7	
			6		2		
9			3		7		8

■ 스도쿠정답

1	9	8	9	6	4	7	8	2	1
9	4	8	8	1	2	6	1	2	9
2	1	6	1	8	9	4	7	9	8
8	9	2	1	4	6	8	9	9	1
8	6	4	9	2	1	2	9	1	8
1	1	9	8	9	8	2	4	7	6
4	8	9	6	1	1	9	8	2	7
6	8	1	2	9	9	1	8	4	4
9	2	1	4	8	8	1	6	9	9

8	4	9	1	9	8	1	2	6	6
8	1	9	2	6	9	4	7	1	8
2	6	1	4	1	8	8	9	9	9
9	9	6	8	1	4	4	2	8	1
1	8	8	9	2	9	6	4	7	1
1	2	4	1	8	6	9	8	9	9
4	8	8	6	9	1	2	9	1	2
6	9	2	8	4	1	1	9	8	8
9	1	1	9	8	2	8	6	4	4